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7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12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낡은 박근혜 보내고 새로운 사회를!

노동개악-열사-총파업-박근혜 탄핵

정말 숨가쁘게 2016년이 지나갔다. 한해동안 정말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민중의 촛불도 있었다. 작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투쟁이 이어졌고, 3월에는 노조파괴로 고통받던 유성영동지회 한광호 열사를 먼저 보내야 했다. 임단투를 통해 지부 총파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사됐고, 연말에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200만명의 규모로 벌어지기도 했다. 정말 숨가쁜 한해였다.

지부-지회 조직력 회복 기반 다져

지부는 9기 1년차를 보내며 크고 작은 투쟁들을 통해 지부-지회 조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올해 7, 8월 임단투 총파업 상경집회, 올해 11월 다시 한 번 민중총궐기까지 진행하며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을 성사시켰고, 임단투 총파업은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됐다. 모

든 지회가 함께 투쟁하는 기풍을 다시 세워가고 있다.

여전히 부족한 면도 많았다. 한광호 열사투쟁,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을 아직 확실히 끝내지 못하고 있다. 지부 전체의 힘을 집중시켜 투쟁을 승리해야 한다. 투쟁이 길어지고 힘들어질수록 지부의 집중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2년차에는 공동의 힘으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투쟁을!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 이상으로 이 사회를 바꿔야 할 것들이 많다. 노동개악을 완전히 끝장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대한 민중의 촛불이 이제는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촛불 혁명의 완성은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잘가라 박근혜! 너도 가라 황교안!

이제 2016년이 가고 2017년이 눈 앞에 다가왔다. 정말 무수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한가지가 공통적으로 떠오른다. 바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다. 2016년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한 해였다.

분노한 민중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한달만에 2만명이 100만명이 되고 200만명이 됐다. 그 힘은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거스를 수 없는 민중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제 촛불의 힘은 우리 사회를 진짜 살맛나는 사회로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쉽지 않다. 박근혜의 대리자인 황교안이 대통령 놀이를 하며 여전히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성과 속죄는커녕 그동안 해오던 정책을 그대로 강행한다.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때이다. 낡은 박근혜를 보내고 새로운 사회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 이번주 일정 *

■ 열사 양재동 농성

일시 : 12/27(화) ~ 28(수)

장소 : 양재동 현대차본사

■ 시국 촛불집회

12/28(수) 18:30 청주 성안길

12/28(수) 19:00 대전 타임월드

■ 시국대회

12/31(토) 17:00 대전 타임월드

청주 성안길